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우리고장
독립현충시설을
부탁해!

고성편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우리고장 독립현충시설 알아보기



경남서부보훈지청

서비정 (서비 최선생 순의비)



1910년 한일합병이 되자 마을사람들에게 국사를 가르치다가 1911. 3 일헌(日憲)이 은사금이라 하여 많은 돈을 가져와 받도록 강요하였으나 받지 않고 자정에 북방재배하고 조국광복을 빌며 음독 순국한 사실이 확인됨



‘동쪽에는 왜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있으니 나의 후손들은 사립문을 서박쪽으로 내고 살아라’라는 유서를 남기셨으므로 그 명을 새겨서 서비선생이라 함

3.1운동 창의탑



1919년 3월 30일 배둔리 장날을 이용하여
최정주·최낙희·최정원·서찬실·김갑록·김동기·허재기 등의 주도로
장터에서 800여명이 독립만세 시위



이 시위로 김갑록, 문기식, 서응엽, 우태선, 이정수, 허재기 등이
피체되어 재판을 받고 옥고를 치름



고성군 삼일운동창의탑거립위원회는 1986년 6월 1일 이 탑을 건립

독립지사 남계 강영순 선생의 사적비



- ✓ 1919.3 진주독립만세시위를 모의하고 시위군중의 선봉에서 용맹을 떨치며 활약하다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음
- ✓ 재판정으로 호송 도중 일본 경찰 2명을 발로 차 쓰러뜨린 뒤 강원도로 피신하여 고초생활
- ✓ 정부로부터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백초월대선사순국비



- ✓ 1919. 4월 승려로서 **한국민단본부**라는 **비밀 단체**를 조직하고 **상해임시 정부의 독립자금 모집** 활동을 하였으며 **혁신공보를 발행**하여 국민의 독립의식을 고취
- ✓ 1920. 4월 의용 승군을 조직하는 등 항일활동을 하다 피체되어 옥고를 치르다가 옥사 순국
- ✓ 1991년 6월 1일 향리인 고성군 영오면 석곡리에 있는 인사들의 정성을 모아 백초월대선사 순국비를 세움



친남종 애국지사 유적비



- ✓ 독립선언 후 1919년 3월 20일 구만면 국척 모래사장과 배둔장터의 독립만세시위를 주도
- ✓ 1920년 일본 도쿄로 건너가 친일파가 만든 '상애회'에 대항하여 '동흥 노동동맹'을 창립하고 동포들의 권익 옹호 투쟁에 앞장섬
- ✓ 정부로부터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옥 천 사



- ✓ 신라 문무왕 16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일제시기에는 경남지역 애국지사들의 주요한 활동거점
- ✓ 승려 신화수와 한봉진은 군자금 모집 등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다 체포되어 옥고
- ✓ 임진왜란으로 완전 소실되었다가 인조 17년 의오대사에 의해 재건
경내의 보장각에는 지방 문화재 100여 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남 지방기념물 제140호

독립지사 좌해 허재기 공적비



- ✓ 1919년 3월 20일 국천사장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여 공약삼장을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선창, 회화면으로 시위행진하여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을 전개
- ✓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중 체포되어 대국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6월형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름
- ✓ 정부로부터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독립지사 좌해 허재기 공적비



- ✓ 1919년 3월 20일 국천사장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여 공약삼장을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선창, 회화면으로 시위행진하여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을 전개
- ✓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중 체포되어 대국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6월형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름
- ✓ 정부로부터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고장**
독립현충시설을 방문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